

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쏜다

정부 내수대책 조만간 발표

내수 진작 관광업 살리기 중점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도

정부가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등을 통해 소비·관광을 증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내수 대책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3년 가까운 코로나19 사태 기간 크게 침체했던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우선 폭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도 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 관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월간 10만명을 밑돌던 출국 해외여행객 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다시 늘어나 지난 1월에는 180만명에 육박했다. 이처럼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의 일정 부분을 국내로 돌리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내 숙박비 3만~4만원을 깎아주는 숙박쿠폰을 지원했는데, 이 쿠폰 사용자들은 평균 쿠폰 지원 금액의 약 11배를 여행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에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해 KTX·관광열차 운임과 렌터카, 지방공항 항

공편, 시티투어 버스 등의 가격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K-팝 공연과 뷰티·미식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간소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올리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도 늘릴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발행을 확대하고, 품목별 할인 행사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5월에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동행축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 전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최근 한전아트센터에서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촉진 나선다

데이터 개방·안심구역 활용 설명회

에너지효율화·서비스 시장 확대

한국전력은 최근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62개 기관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이 보유한 전력 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데이터 개방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보유한 데이터의 외부 개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의 한전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관련 시장 확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보유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한전의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사업화에 대한 정보는 한전의 데이터 기반 에너지서비스 포털인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유통 플랫폼인 '전력데이터 서비스마켓'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2023년 1월 공기업 최초로 국가 지정 승인을 받아 나주 한전 본사 및 한전 아트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을 통

해 그동안 각종 제약으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했던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관련 사업화 전면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전은 한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종합안내 및 분야별 활용사례 소개, 국가 지정 데이터안심구역 소개 및 이용방법, 한전이 운영하는 에너지 서비스 포털인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및 전력데이터서비스 마켓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서 카이스트 연구팀은 '제주 TOU요금제 적용에 따른 전력사용자 행동변화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에너지 서비스 개발사인 헤리트는 에너지사용량 절감 인센티브 제공 앱,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관리 및 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 활용 신사업모델 발굴에 유용한 가명정보 결합제도 소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건의·개선사항 의견수렴, 데이터안심구역 이용희망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도 진행했다. /오지현 기자



지난 24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된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경품 추첨식에서 관계자들이 당첨 상품을 들여보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제공

전남신보, '떡깨비' 경품 이벤트 당첨자 추첨

1등 캐스퍼...2등 LG노트북

매출 100억 달성 목표 순항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된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경품 및 할인쿠폰 이벤트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기간동안 떡깨비 앱에서 2회 이상 주문·결제하고 이벤트 참여 정보 제공에 동의한 1만1,347명이 최종 추첨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품추첨식은 지난 24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에서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입회한 아래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벤트 경품 당첨자는 총 2,023명이 선정됐다. 1등 1명에게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2등 2명에게는 LG노트북이 제공된다. 3등 당첨자 2,020명에게는 떡깨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 할인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품·할인 이벤트를 통해 떡깨비 앱 이용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이벤트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한달간 주문수와 매출액이 각각 1만4,000건, 3억6,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 2만건, 5억1,400만원, 2월에는 3만8,000건, 9억9,600만원으로 이벤트 기간 내

내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편 떡깨비 누적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주문수 15만 7,000건, 매출액 40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10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순항 중이다. 떡깨비 가맹점에 대한 관심 재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는 1만 포인트의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정영수 이사장은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배달앱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중진공광주본부, 중기 혁신바우처 지원

컨설팅·마케팅 등 최대 5천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집기

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광주지역 예산은 약 12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번 모집은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올해는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미래차 전환 혁신기업과 선정이력없는 제조소기업에 중점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주 광주지역본부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위기 극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농어촌공사, 청년농 임차인 모집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최장 20년...내달 3일까지 신청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전문교육 등을 마친 청년 농업인이 농지 및 시설확보를 통한 스마트팜 영농창업이 가능하도록 '비축농지 임

대형 스마트팜 사업' 임차인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시설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 대상 농지 소재지는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총 10곳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소유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며 선정 인원은 총 11명이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신입회원 선발

광주디자인진흥원 내달 3일까지

세계 일류 실무디자이너 육성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KDM+)의 4기 회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KDM+는 '세계일류디자이너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대학생을 선발, 세계 일류 수준의 실무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통

으로 KDM+ 회원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회원은 2년간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디자인 연구, 국내·외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시제품 제작, 전문가 멘토링, 국제 디자인 어워드 (IDEA, IF, Red Dot 등) 출품, 전시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이며 대상은 2년간 교육 참여 및 멤버십 활동이 가능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소재 대학의 디자인 관련 전공 2학년 이상 학생이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가두캠페인

광주은행은 최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전남 목포역과 순천역, 서울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영업본부별로 팀을 나눠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송정역에서 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고향

사랑기부제 안내장을 일일이 전달·홍보하며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고 은행장은 "고국 및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뜻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어 임직원들과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